

전북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전주시-서울여대-포스코건설-한국해비타트 등과 협약... 전주 도토리골 도시재생 위해 전방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자체 및 기업 등과 손잡고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28일 전주시 서울여대, 포스코건설, (사)한국해비타트와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에서 주관하는 '전주시 도토리골 새마을을 도시재생 해법 찾기' 프로그램 수행에 앞서 다양한 기관의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 외부 에너지를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등 대학은 기술과 학문적 자원,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획하고, 전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또한 (사)한국해비타트는 도시재생



전북대는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8일 전주시 서울여대, 포스코건설, (사)한국해비타트와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문 및 정보 협력과 자원봉사활동을,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관련 인·물적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전북대 LINC+사업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자인 전주 중화산동 도토리골에 전북대와 서울여대

각각 12명씩의 학생들이 디자인씽킹 기법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에 4월 30일과 5월 7일 등 2회에 걸쳐 비대면 사전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과 도토리골 마을 현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4인 1조로 팀을 구성 주민 참여 현장 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력형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한 고영호 단장은 "지역 문제 솔루션 제안 및 로컬 이노베이터 양성 등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지자체, 기업 등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지역 발전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탄소복합재산업' 인력 양성한다

전북대, 103억 규모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5년간 총 108억 원(국비 75억, 기관부담 28억)을 지원받아 전주대, 금오공과대, 경북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 및 3개 참여대학(전주대, 금오공대, 경북대)은 전북과 대구·경북권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탄소복합재 융합학과/전공/트랙 체계를 신설·정비해 ▲산업 수요형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탄소복합재 분야 선도 기업과 문제 해결형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경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문연구원(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

구소)의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실증 인프라 등을 활용해 현장을 모사한 산업 전주기 맞춤형 러닝 팩토리(Learning Factory)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156개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는 탄소융합 산업연구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경험지식 전수와 산학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C2-Camp'를 통해 탄소복합재 산업현장 전문가로부터 석박사과정생들에게 실무지식/기술/노하우 전수 및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전북대는 유가소세습유공학과, 고분자·노공학과, 노융합공학과, 인자시스템공학과, 로스알라모스연구소와 연계해 대학원 협동과정(탄소융합재료공학과)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사업 총괄책임 맡은 오명준 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논문 중심의 좁은 실험실에 가뭇된 기존 교육체계의 낡은 틀을 벗어나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실무적 지식을 갖춘 융복합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탄소복합재 기술의 국산화·고도화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2.9대 1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57명 선발에 3,325명이 접수해 평균 12.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교육행정직은 일반 212명 선발에 2,833명(경쟁률 13.4대 1),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9명 선발에 46명(경쟁률 5.1대 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5명 선발에 47명(경쟁률 9.4대 1)이 접수했고, 전산은 1명 선발에 25명(경쟁률 25.0대 1), 사서는 7명 선발에 62명(경쟁률 8.9대 1), 시설 일반보통은 1명 선발에 13명(경쟁률 13.0대 1), 시설 건축은 4명 선발에 67명(경쟁률 16.8대 1)이 접수했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 건축(고졸)은 3명 선발에 17명(경쟁률 5.7대 1), 운전 일반은 12명 선발에 208명(경쟁률 17.3대 1), 운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에는 3명 선발에 7명(경쟁률 2.3대 1)이 접수했다.

한편 시험장소는 5월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kr)에 공고한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6월 5일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5일 발표한다. 인적성검사는 7월 10일, 면접시험은 7월 22일 각각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새로운 공정무역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전주대, 대학·지역 주민·기업·지자체 협업... '상품화 리빙랩 협의체' 구성·활동

전북대학교가 지역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협업하는 새로운 공정무역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공정무역은 '착한 무역', '착한 소비'의 개념이다. 선진국 위주의 무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개발국가에서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전주대는 공정무역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역 특산물 생산과 융합해 '착한 소비'와 '착한 생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혁신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로컬과 공정무역을 융합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정에도 사회혁신 방법론인 리빙랩이 적용됐다. 전주대 박형웅 교수를 중심으로 브랜드, 제품 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 혁신 가들이 모여 '공정무역 상품화 리빙랩 협의체'를 구성해 이레로부터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공정무역 상품화 리빙랩 협의체'는 도내 사회적기업 및 혁신 벤처기업을 조사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 공정무역과 로컬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들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업의 신상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공정무역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뿐



한입푸드 '누룽지 그레놀라'

만 아니라 상품의 브랜딩 전략, 패키징,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며 기업이 공정무역 제품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기업들도 올해 초 제품을 출시,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한입푸드는 '누룽지그레놀라'에 설탕 대체재인 공정무역 마스코바도와 공정무역 아몬드를 사용하고 군산 제보선창 마을기업은 할매떡이바 스낵의 재료를 100% 로컬농산물과 공정무역 마스코바도로 활용했다. (주)이산도 '전북 예술 작품 에코백'과 제품 패키지의 소재를 공정무역 유기농 면으로 바꿨다.

물론 기존 재료를 공정무역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코로나19로 공정무역 제품 수입 채널이 막혀 확보 가능한 재료가 한정적이고 무엇보다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제품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갔다. 하지만 협의체와 참여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고 공정무역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26~27일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구성·선출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연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받아 강의 시 정보 공유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업무담당자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업계고 역량강화사업 추진

올해 특성화고 13·일반고 7개교에... 5억원 예산 투입·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고, 취업마인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1학년도 직업계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특성화고 12개교·일반고(전문계열) 7개교 등 총 19개교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학생 진로지원 ▲학교 인성개선 ▲취업역량강화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학생 진로지원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 및 전공 창업동아리 운영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교육과 취업·창업동아리 운영 등이 가능하다.

학교 인성개선 사업은 신입생 홍보, 중학생 및 학부모 교육, 중학교 직업체 협교실, 건설기계조정교실, 지역민 생활 기술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협

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학생 직업체협교실'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교과연계형 학습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취업인식 제고를 위한 취업설명회·취업캠프·CEO 특강·노동인권교육 등을 운영하면 된다. 또 성공공인인 멘토링,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프로젝트 수업 확대, 전문가 기술연수 등의 세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실외교과제, 기지배회중, 통학버스 실습재료비, 포상금, 업무수당, 학교환경개선 3학년 대상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제한된다.

도교육청 직업계고 담당 장학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안전한 실습환경 구축, 취업준비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학습·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직업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